

가슴통증과 심장병

짧은 통증은 협심증·30분 넘으면 심근경색

다양한 원인 가슴통증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금연·규칙적 운동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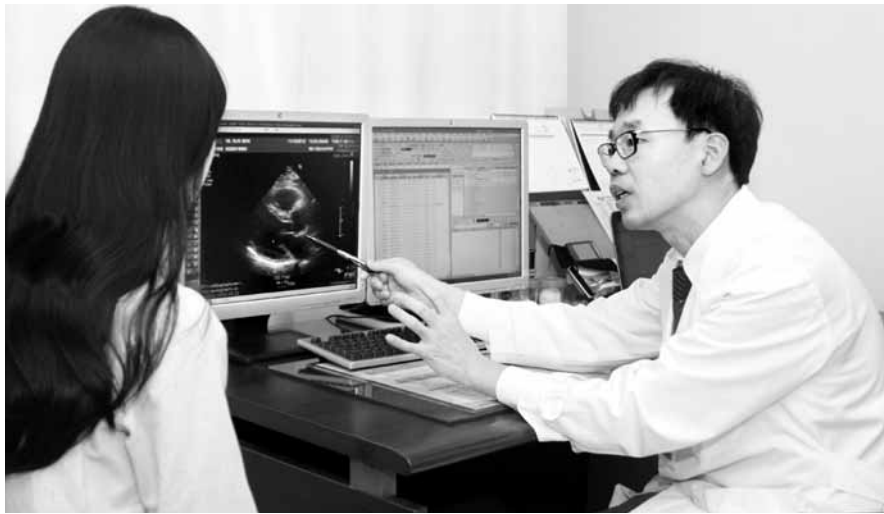
가슴통증이 모두 심장병은 아니다. 60대 중반의 중년 여성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상태에서 앞가슴과 등쪽의 통증 증세로 심장질환을 걱정하며 응급실을 찾아왔다. 심장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검진 후에 등쪽에 수포성 피부발진을 보이는 대상포진을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 약물치료 후 증세의 호전을 보였다.

흉통은 말 그대로 가슴부위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말하며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슴통증하면 흔히 떠오르는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대동맥 박리·심낭염과 같은 심장질환, 폐렴, 흉막염·흉막염·폐색전증·늑막 삼출 등의 폐질환, 역류성 식도염·급성 췌장염·위궤양과 같은 위장질환, 갈비뼈 골절, 척추 질환·가슴 근육이나 건 질환 등의 근골격계 질환,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정신 심인성 요인, 대상포진의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등 많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다행히 흉통의 절반 이상 통증은 흉부의 근육이나 근육을 감싸는 근막에서 기인하는 근근막통증인 경우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흉통은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질환이지만 소화기계나 신경 및 근골격계, 폐질환, 심치어는 정신적 요인에 의해서도 흉통이 나타나므로 다양한 원인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흉통=허혈성 심질환은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혀서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이다.

협심증 환자의 흉통은 안정 시는 괜찮다가 과도한 운동을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계단을 빨리 오르는 등의 활동, 과식 후에 발생하지만 휴식을 취하면 없어지는



동아병원 영형렬 원장이 찾은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직장인에 대한 정밀검사 후, 통증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아병원 제공)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심근경색 환자는 가만히 쉬고 있어도 가슴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협심증은 심근허혈에 의한 흉통을 일컫는데, 실제로 통증이러기보다는 조이는 느낌에 가깝다. 따라서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며 또한 무거운 것으로 눌러 압박감과 조이는 느낌, 답답하거나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흉부 불쾌감을 호소한다. 이외에도 가슴에 따를 듯한 거나 가슴복판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다.

또한 협심증 유사증상으로 가슴 중앙부위에 호흡곤란, 좌측상완, 목, 어깨의 통증, 소화불량, 오심, 어지럼증, 발한 등의 증상이 보이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통증의 지속 시간이 갈별진단에 중요한데, 협심증은 대부분 30초에서 10분 정도 짧게 지속되는 통증이 특징이며 순간적이거나 15초 이내인 경우는 협심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근경색에 의한 흉통은 30분 이상 지속돼 가슴을 쥐기도 하고 눌러서 부서지는 느낌, 불에 달군 쇠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는 통증, 때때로 구역과 구토, 현기증, 심한 호흡곤란, 의식을 잃고 소크에 빠져 심장마비를 일으키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한다.

동아병원 영형렬 원장은 “중년 남성의 허혈성 심장질환은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과체중, 흡연, 스트레스 등에 의해 생기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저염식, 금연 등의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소화기계, 신경·근골격계, 정신적인 요인 등에 의한 통증=흉통은 소화와 관련된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주로 가슴부위에 관련기관이 있어서 협심증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통증은 앞가슴과 등쪽, 명치 끝 부위에 타는듯하게 느껴지며 누운 자세나 숙인 자세에서 심하며 우유나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경감되는 특징이 있다.

갈비뼈 골절, 갈비와 연결된 늑연골에 발생하는 염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흉통은 상체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과 함께 목소리가 나며 호흡시 가슴이 바늘에 찌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아픈 곳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더 심해진다는 점이 심장질환에 의한 흉통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동아병원 영형렬 원장

■ 질환별 가슴통증 유형

협심증
과도한 운동·과식 때
30초에서 10분 정도 짧게 지속

심근경색
가만히 있어도 30분 이상 지속

대상포진
스치기만 해도 아픔
통증 3~4일 후 수포 발생

갈비뼈 골절·늑연골 염증
아픈 곳을 누르면 통증이 더 심해짐

역류성 식도염
앞가슴, 등, 명치 끝이 타는 듯한 통증

불안·스트레스
왼쪽 가슴 밑에 1분 미만 지속

경추, 흉추의 퇴행성관절염에 의한 흉통은 상체움직임, 특정 자세, 기침에 의해 발생하며 대상포진 환자의 경우 스치기만 해도 아픈 심한 통증과 3~4일 이후 발생하는 전형적인 수포가 나타난다. 폐질환 및 폐색전증, 기흉에 의한 흉통은 휴식에도 갑자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과 빠른 호흡, 청색증이 동반된다.

불안, 스트레스, 화병에 의한 통증은 대개 왼쪽 가슴 밑 부위에 수초에서 1분 미만의 갈로 찌르는 느낌으로 표현하며 운동과 무관하게 휴식 시에도 발생하고, 숨이 막히거나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여러 증상을 한꺼번에 호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아병원 영형렬 원장은 “반드시 금연이 필요하고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 음식은 삼겹살 먹고, 채소·과일과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능한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과 적절한 체중유지가 필요하다”면서 “평소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생활하며 적절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 응급상황 발생 시에 할 수 있는 기본 심폐소생술교육의 습득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약물·유전자 동시 방출 스텐트 전남대병원, 미국·일본 특허

안영근 교수팀

전남대병원 심혈관연구센터 안영근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약물과 유전자 동시 방출 심혈관계 스텐트가 일본특허에 이어 미국특허까지 획득하면서 세계적 우수성을 입증했다.

안영근 교수팀(권진숙 박사·정명호 교수)은 전남대공과대학 조동련 교수(송선정 박사)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티타늄 산화물 박막코팅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 스텐트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국내에 이어 지난 1월 미국서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일본특허 획득에 이어 성과로 전남대병원의 심혈관계 스텐트 연구수준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스텐트는 지금까지 약물만 방출했던 기존의 스텐트와는 달리 약물과 유전자를 동시에 방출시켜 혈관변형을 예방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번 스텐트는 티타늄 산화물 박막 코팅이라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기술을 이용해 항염증 및 항혈전 작용이 있는 암시시탐(Abciximab) 약물과



안영근 교수

KLF4 유전자를 스텐트 표면에 코팅해 방출함으로써 동시에 방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동시 방출 기능에 따라 혈전증이나 급속 과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스텐트 내 혈관 재협착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스텐트 특허등록으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격적인 실용화 작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일본특허 획득에 이어 성과로 전남대병원의 심혈관계 스텐트 연구수준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심혈관질환 중개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안영근 교수는 전임상과 임상연구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교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등의 각종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 안영근 교수는 재생치료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수많은 논문과 특허를 발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공익적 비용 127억 전국 최고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원)이 국립대 병원 중 공익적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립대 병원 공익적비용 계속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공익적 비용이 127억87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적 비용이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난치성질환 치료, 정부 지원 의료시설 운영, 공공의료사업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전남대병원의 공익적 비용은 전국 평균인 61억9300만원 보다 배 이상 많고, 2위를 기록한 A병원 보다 25%여원 더 많은 액수이다. 또한 이는 의료수익 대비 4.5%(평균 2.2%)이며, 병상 당 공익적 비용은 1330만원(평균 650만원)으로 전남대병원의 공익적 비용 비중이 타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안전망 질환군·안전망 의료시설·의료급여환자·비급여진료·공공의료사업 5개 부문에 걸쳐 시행됐다. 이 부문 중 희귀난치질환 및 고중증도 질환 치료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망 질환군 부문에는 20억7200만원으로 전국 평균(12억9000만원)의 160% 수준이고, 정부지원 의료시설 운영실태를 나타내는 의료안전망 의료시설 부문은 16억 2800만원으로 평균(5억6700만원)의 무려 3배에 달했다. 비급여진료비 부문에서도 66억2100만원이 소요돼 전국 평균(22억4300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또한 전남대병원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은 공익적 비용에서 국가보조금 27억 6000만원을 제외한 100억7200만원에 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청연한방병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사내 복지 프로그램 다채

청연한방병원(대표원장 이상영)이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청연은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들에게 여행비를 지급하는 등 수준 높은 직원 복

지제도를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청연은 근무 연수가 5년이 된 66명의 임직원들에게 각각 여행비 100만원과 포상 휴가를 지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청연은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현대에 맞춰 임직원의 보육지원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균형 발전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보육지원으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임직원들에게

연간 12회 가량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청연은 자체적으로 사내 전산망을 통해 동료들 칭찬하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칭찬을 하거나 받은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낸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임야 ◆ 삽니다

신속 / 당일처리!
(주)오천개발
H. 010-3605-5000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음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개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구매 - 1억 500만원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50만원 가능
- 주인직매
H. 010-8902-7900

나주, 남평읍 토지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계획관리지역
-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60 ~ 100 만원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 장기투자 최고물건
- 주인직매
H.010-3605-5000

오천경매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상담예약 필수!
담당 최 선 규
H. 010-3605-5000